



시론 02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Y프로젝트, 광주의 새로운 시작

종합 03

사랑에서 _ 하늘은 지붕 너머
법령정보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남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
전라남도건축사회, 2023 건축인의 밤 개최 예정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건축사회, 2023 공사감리 전문교육 개최
전북건축사회,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전라북도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건축설계공모

광주 지역 뉴스 08-09

광주건축사회,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과 생활 속 실천과제 홍보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제33회 건축전시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동구, 남구, 광산구청에 사랑의 쌀 기증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10

은상(사용승인 일반(한옥)분야) '행심제'
동상(사용승인 일반(주거)분야) '우아한家'
동상(사용승인 일반(비주거)분야) '카페 링크'

종합뉴스 11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 후보자 3인 합동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심터' 공모
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어디서 살 것인가
한 장의 사진 _ SHIP'S CAT (Yanobe Kenji, 2022)
한 편의 시 _ 홀로 남겨진 어머니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3.12.16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Y프로젝트, 광주의 새로운 시작



신재욱 논설위원

광주광역시 친수공간과장
newurban@hanmail.net

[경력]

- 광주광역시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주광역시 복구청
-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 건축사
- 도시계획기술사

[참여 도시계획 프로젝트]

-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광주 지구단위계획 기준 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 경관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등

[저서]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과 부동산(2022)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서 (2008)
-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 등

자연녹지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주된 문의 내용이 '도심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부지에 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 녹지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가능한지'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살펴본다. 70년대 10.3%, 80년대 9.8%, 90년대 9.1%, 2000년대 5.3%, 2023년 1.2%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표이다. 1955년부터 1980년까지 44.9%, 1995년부터 2018년까지 4.4%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되어 인구를 수용하기에 도시공간이 부족해 주거·공업·상업용지를 확보하려고 녹지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녹지지역을 변경할 만한 성장요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2017년에 새로운 인구지표로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는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엔 도시이용인구 개념이 새로이 대두될 정도로 거주는 물론 머물고 방문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도 유사한 맥락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 수도권은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경쟁해 이기기 힘들다. 서울 대도시권이 북경, 상해, 동경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였다. 비수도권 대도시는 '저성장, 축소시대에 선택집중(Concentration)+네트워킹(Networking)'으로 재편하여 Hub&Spork 모델로 'KTX(급행) 경제권 Hub+대도시권 광역철도망 모형'이 나왔다.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서 21세기 지식노동자 시대의 변화에 있다. 20세기는 중앙정부 주도, 획일적 도시, 전통적 사고,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21세기 지식노동자 시대에는 지역주도, 창의력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는 100년을 그리는 창의적 도시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광주시는 2023년 10월에 '영산강, 황룡강 Y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였다. 광주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영산강과 황룡강이 Y자 형태로 흐르고, 두 강이 만나는 Y에 자연과 인간, 기술과 예술, 광주와 전남이 만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도시에는 그 도시를 흐르는 매력적인 물길들이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프랑스의 세느강, 한강, 태화강처럼 물길의 매력과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의 강들이다. 광주는 광주천, 황룡강이 만나는 영산강이 있다. 영산강을 통해서 새로운 해양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Y프로젝트이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의 맑은 물을 회복하고 장록국가습지와 강을 보전하는 '기후환경계획'이자, 마한을 시작으로 물류 뱃길의 서창나루 선비정신이 깃들여 있던 풍영정·호가정 등의 오랜 역사 자원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역사 문화 계획'이며,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이 조성될 어등산 관광단지 와 연결되어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열어 나갈 '새로운 도시 계획'이다. 결국, 기후환경, 역사, 문화, 도시계획과 더불어 광주의 낭만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주의 도시공간 구조는 광주읍성 시대부터 근대시대까지 광주천을 중심으로 도시의 생산·소비·주거·문화의 역사를 통해 구축되어 왔다. 1990년부터 수완, 첨단,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평동공단, 하남, 빛그린산단이 확장되면서 영산강은 이미 광주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되었다. 허나 위상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들은 부족했고, 시민뿐 아니라 광주를 찾는 사람에게 영산강은 여전히 머나먼 강이었다.

Y프로젝트에는 4대 가치가 있다. 첫째 물이 맑아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즐거워야 한다. 셋째 생태적이어야 한다. 넷째 단절된 길이 연결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맑은물, 익사이팅, 에코, 연결"이다.

먼저, 맑은물 유지를 위해서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에 영산강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관리되던 영산강 물을 먹는 물로 전환하여 가뭄 때는 식수로,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맑은물 순환 공급체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영산강의 역동성, 황룡강의 생태를 재해석하여 영산강 익사이팅 풀썸라인에 산동고 익사이팅 존, 덕흥·서창 생태조망명소, 승촌 낭만과 힐링의 섬이 조성된다. 황룡강에 어린이 테마 정원, 수상레저 등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로 물길, 숲길, 사람길을 연결한다. 걷고 싶은길 광주 RE100의 하나인 황룡강 30리길, 영산강 70리길을 더해 100리길을 연결한다.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Y브릿지를 연결하여 군 공항 이전 준비과정과 미래의 투자, 소통의 길로 조성한다.

산업화 시대의 위기는 식량부족, 주거환경 등이라면 최근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저성장에 마주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인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듯이, 새로운 위기시대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실험 어부바니까 탐탐한 금융설계 든든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출자금 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법인건축사사무소 조합원 가입 가능
동일인 한도대출 10억원
세무사항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사랑에서 _ 일백일곱 번째

하늘은 지붕 너머

낙엽 지고, 찬 바람 불고,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이 되면 올 한해도 끝자락에 다가서는 시기임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다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에 접어들면 지난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기약하는 우울한(?) 시간과 희망의 계획을 짠다. 그러나 이런 반복의 시간이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안다. 우리 언젠지 모르지만, 곧 이 세상과 이별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망각하며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고 그리 살아간다. (나만 그러는 것을 일반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다가 접한 시(詩)를 몇 번이고 되씹어 본다. 어릴 때부터 가난, 술, 여자, 동성애, 질병, 교도소 등의 단어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1844~1896)의 〈하늘은 지붕 너머〉라는 시다.

//하늘은 지붕 너머/ 저렇게 파랗고 조용하구나/ 종려나무는 지붕 너머 저편에/ 큰 잎을 일렁이고 있구나...// 앓 맘소사, 삶은 저렇게/ 단순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을/ 시가지 쪽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저 웅성거림 //--
- 무엇을 했는가, 여기 이렇게/ 끝없이 울고 있는 너는/ 말해 보라, 무엇을 했는가, 너는/ 네 청춘으로 대체 무엇을 했는가?//

“네 청춘으로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뼈아픈 송곳 질문에 얼마나 당당한가. 섬뜩하다. 원하지 않았지만 내 나이드도 앞에 6자를 달게 되었다. 숫자로만 보면 ‘청춘’의 시기가 훨씬 이전에 지나갔다.

그러나 용기를 다시 가져본다. “청춘은 인생의 시기가 아닌 어떠한 마음가짐”이라는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이라는 시에서 말이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청춘’을 다시 보낼 수 있음에 희망의 마음 다짐을 한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1941~)는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청춘〉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청사과처럼 푸르고 무르익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찬 인간과 사회를 꿈꾸는 그의 소망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또 도전이다. 본인이 설계한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에서다.

80세가 지나서도 ‘청춘’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겨우 6자를 단 사람이 쫓그라들고 기죽어 살면 되겠는가. 리처드 로저스는 40대부터 세계적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지만, 루이스 칸은 60대에 비로소 그의 대표작을 만들지 않았는가. 나이 앞에 어떤 숫자가 있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자.(꿈꾸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란 말을 붙잡고, 가슴속을 청사과처럼 푸르고 푸른 청춘으로 채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도전의 목표와 방향과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마음속 청춘이 끝날 무렵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_ 박홍근 건축사(aaforyou@nate.com)

법/령/정보

□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 공포·시행 일자 : 2023. 11. 1.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시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
 - (신설) 가설건축물의 입면도·단면도·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신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신설)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련(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 (신설)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예정공정표(건축주의 확인을 받은 것) 및 분야별 건축사보 배치계획
 -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및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 (신설)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가 이종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사보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함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항 감리보고서 기재 관련(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신설) 감리보고서에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옥광돈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김종문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해순, 오선화, 임용훈, 김화진, 장기섭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구독료임금계좌
 • 하단광고 : 350,000원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하단1/2광고 : 200,000원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광고 및 구독신청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후보

살아냅시다! 반드시 힘이 되겠습니다!

민간대가 법제화.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우리 업역을 침탈하는 단체. 반드시 엄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권익 수호.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정명철의 337 약속!

3 가지 법제화

1. 업무대가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2. 업역수호와 업역확장을 위한 법제화
3. 건축사 권익 향상 및 사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3 배 지원

1. 회원복지에 대한 3배 지원
2. 회원업무에 대한 3배 지원
3. 시·도 건축사회에 대한 3배 지원

7 가지 약속

1. 정관 개정으로 회장 임기 3년 단임제 등 실현
2. 복식부기제 도입 및 협회예산 축소, 건축재정 운영
3. 337일 상주하는 회장으로 철저한 협회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

3 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정명철

M 010-3634-5845 H www.amggroup.kr

- 전)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전)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전)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
- 전)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정책위원장
- 전)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주택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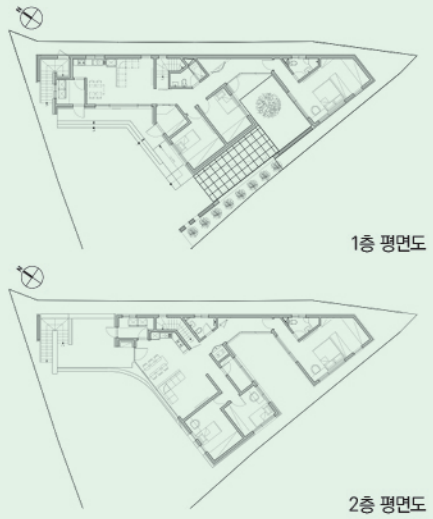
양성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전남 순천시 강변로 1052, 1층
Tel. 061-755-2898



대지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삼동길 31 / 대지면적 : 421.00㎡ / 건축면적 : 154.27㎡ / 연면적 : 198.53㎡ / 건폐율 : 36.64% / 용적률 : 47.16%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라임스톤, 송판무늬미장, 현무암

오래 전 알고 지냈던 지인의 결혼으로 시작된 신혼집 프로젝트이다. 일반적인이지 않은 삼각형대지의 모습 때문에 신혼부부는 걱정하였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해 충분히 장점으로 바꾸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층에는 남편의 부모님 같은 고모 부부가 거주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2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2가구가 적절하게 구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향을 포기하고 서향으로 거실의 배치를 결정하였다. 특별한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향의 선택으로 우리는 중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더 깊숙하고 많은 곳에 햇빛을 두루두루 확보할 수 있는 반전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삼각형은 '품다'라는 특징으로 발견되어 중정과 안방을 품은 집이 완성되었다.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동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삼성 자이언츠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대지면적 :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대지면적 :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처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철골공사 15~45% 원가절감

내부기둥을 최소한 획기적인 철골공법

시공성 용이

공시기간 단축

구조/설계/시공의 기술인증서보유 (15년유연 구조연장)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 · 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도내에 있는 건축관계자들에 역량강화, 업무협력을 도모



올해 직무관련 특강 및 2024년도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전문가특강을 통해 건축관계자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전라남도건축사회가 지난 11월 30일 The-K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개최한 워크숍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건축행정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사 및 시·도·군 주택업무 담당자와 건축관계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전문가 특강에는 건축공간연구원 김꽃송이 부연구원의 '설계공모제도의 이해' 강연과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박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 탄소중립과 주거', 음악연구소 대표 최윤희 '영화와 함께하는 힐링뮤직' 강의로 진행됐다.

전남 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

국내 첫 '모듈러 공법' 적용 단독주택단지



돌오마을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의 시범사업이다. 고품질의 친환경 모듈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DL이앤씨가 지난해 6월 착공했다. 돌오마을이라는 이름은 '돌오다(돌아오다)'의 전남방언)라는 단어로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

돌오마을은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377-3 일원에 위치한다. 2만5,127㎡ 규모의 부지에 지상 1층(다락방 별도) 전용면적 74.5㎡의 단독주택 26개동과 주민공동시설 1개동이 건설됐다. 입주민은 최대 4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 단지는 올해 5월 입주자모집을 실시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돌오마을은 부지의 경사면을 활용해 모든 건물의 조망·일조 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인근 지리산호수공원 등 지리산 배후관광 및 휴양자원이 풍부하다. 또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 면사무소, 보건소 등 주요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다.

돌오마을에 적용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사업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진행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을 위해 100% 분양이 완료된 양주옥정 A-24BL 공동주택사업(938가구)의 수익 일부가 구례군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건설사업에 투입됐다.

전남 구례군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성장축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 입주를 통해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건축사회, 2023 건축인의 밤 개최 예정

오는 12월 19일...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대연회장 1층에서...

시간	구분	비고
15:00~15:30	접수	참가자 등록 및 실무교육 출석체크
15:30~16:30	윤리교육	건축사의 직업윤리
16:30~17:00	관계자 리허설	준비시간
17:00~19:00	개회행사	
	1부(기념식)	
	2부(축하공연)	
	3부(만찬)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한형민)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오는 12월 19일 17시에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골드동 대연회장 1층에서 「2023 건축인의 밤」 송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개최 전 15시 30분에 법무법인 가현 박동하 변호사의 윤리교육(건축사의 직업윤리)이 진행된 후에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 기념식 행사와 2부 축하공연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한형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회원님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태와 인간을 담은 도시 건축, 시민이 만드는 건축아카데미

여수 생태도시건축 시민전문가 양성교육... 총 5회 실시



여수YMCA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이달 13일부터 일반시민, 공무원, 건축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생태도시건축 시민전문가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여수 도시재생과 교통, 도시계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교육으로 대학교수, 건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총 5회 강좌에는 여수에서 주택과 아파트에서의 저탄소 건축의 방향,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방향,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건축에서의 2050 탄소제로 달성방향,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진이 세계 최고의 마약 도시에서 도시재생과 교통의 혁신을

통해 누구나 찾아가는 기적의 도시로 변화하는 사례연구로 짜여질 예정이다.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은 “여수를 생태친화적인 도시계획수립과 저탄소건축 및 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의미를 설명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허가권자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신청기간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접수



전라남도에서는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2023.12.18.)까지 전라남도에서 아래 법령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며,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제출 방법은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검토 후에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로만 명부작성을 하여 모집결과는 12월 22일 전라남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Tel. 061-286-7732)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예은 건축사 / 로고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206, 2층 201호
- 이상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상 / 전남 나주시 남교1길 5-8

• 부고

- 김갑득 건축사 / (주)세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1월 26일(일)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방지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삼천 빌리지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28, 4층
Tel. 063-224-1492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58-2,3,4,5번지 / 대지면적 : 1단지 3,306.00㎡, 2단지 4,239.00㎡ / 건축면적 : 1단지 660.93㎡, 2단지 586.51㎡ / 연면적 : 1단지 1,035.61㎡, 2단지 1,010.83㎡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1단지-라임스톤, 유글라스, 2단지-스타코, 치장벽돌, 미장노출콘크리트

전북건축사회, 2023 공사감리 전문교육 개최

12월 15일... 전주 바울교회 내 바울센터 2층에서

국토교통부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조치로 2024년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규정하였음에 따라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오는 12월 15일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공사감리 필수 확인점과 보고서 작성방법, 공사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훈 건축사, (주)하제 건축사사무소 이상열 건축사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전북건축사회,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회원 등 80여명 참가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난 11월 24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일원에서 회원과 회원 가족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 연합이 주관했으며, 참가자들은 금산사를 따라 늦가을 경치를 만끽하며 길을 걸으며 회원들 간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회원들 간의 화합과 도회 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합행사를 통해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건축사회 한마음 걷기 대회는 격년으로 전주지역건축사회와 시·지역건축사회 연합으로 주관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건축설계공모

내년 3월 11일까지 접수... 3월 말 최종 선정

정읍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8일 시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건축설계 공모는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일원에 총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연면적 1,089㎡(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 10실과 신생아실, 격리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다. 시는 공모안 작품을 내년 3월 11일까지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에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는 불가하다.

그동안 서남권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전주나 군산, 익산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이마저도 민간 산후조리원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군산대학교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개최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활성화, 향후 방향성에 관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관계 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군산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이 지난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전라북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관련 전문

가 등 약 60여명이 참석,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발표와 관련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실무 건축사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북건축사회(박진만 회장)는 "전주를 비롯한 지방소멸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소멸의 대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삼천천 산책길 아래 자리한 2,500여평의 부지에 석양을 조망하며 수변에 비친 낙조를 담는다. 웅장한 출입구를 지나면 열린 공간과 수변을 맞이하게 된다.

1층은 각각의 높이가 다른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또한 3개의 각각의 높이가 다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도 2개의 변화된 슬라브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겹쳐지며 나뉘지는 재미있는 공간들의 연결을 볼 수 있다. 3층 상부층과 연결된 ROOF TOP에서는 전체를 조망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딱딱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건축이 재미있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경험함으로써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지역 소외계층에게 연탄 5,000여장 전달



지난 8일 전라북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전주시 색장동 언색명화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성열 회장 등 전주지역 건축사 20여명은 최근 건축 경기가 침체에 있어 건축사

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건축 전문가 단체로서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에게 연탄 5,000여장을 전했다.

이성열 회장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소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에게 연내에 5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금강도서관’, 일반부문 ‘LE LAC’ 선정

일반 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공공 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시상



일반부문 금상 'LE LAC(르락)'

공공부문 금상 '금강도서관'

전북 군산시는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일반 분야 금상에 나운동 소재 'LE LAC', 공공 분야 금상에 조촌동 소재 '금강도서관'을 각각 선정했다.

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해 지난달 24일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공공 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총 6점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일반 분야 5점, 공공 분야 4점 총 9점이 접수됐으며, 일반 분야 금상에 나운동 소재 'LE LAC', 은상에 성산면 소재 'Twinkle Housing', 동상에 미장동 소재 '이현재(二鉉齋)'를 선정했다.

공공 분야 금상에 조촌동 소재 '금강도서관', 은상에 조촌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및 어린이도서관', 동상에 옥구읍 소재 '우포보건진료소 및 우포경로당'을 선정했다.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와 윤리교육, 송년회

-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 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신관 5층 그레이스 홀

행사구분	일정계획
1부 - 임시총회	15:00 ~ 16:30
2부 - 윤리교육	16:40 ~ 17:40 문창호 건축사(건축사의 직업윤리)
3부 - 송년행사	17:40 ~ 송년회 및 만찬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고지인 건축사 / (주)서로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4

• 퇴회

- 김성수 건축사 / 가담.고려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송일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담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3, 203호

- 이원우 건축사 / 사유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44, 201호

- 홍미희 건축사 / 온유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44, 201호

• 결혼

- 조영철 건축사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11월 25일(토)

• 변경(소재지)

- 서영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진건축 / 모친상 - 11월 06일(월)

- 이용수 건축사 / 태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1월 18일(토)

- 조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모친상 - 11월 20일(월)

- 김상규 건축사 / 다음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11월 21일(화)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12월 02일(토)

광주건축사회,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과 생활 속 실천과제 홍보

전남대병원 앞 오거리에서... 안전문화캠페인 펼쳐



광주광역시건축사회(정인채 회장)는 지난 11월 14일 전남대병원 앞 오거리에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과 함께 '3대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광주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은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구성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광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율방재단광주연합회, 광주녹색교통운동 등 40여 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교통사고 및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밖에도 가을철 안전사고 및 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등) 예방 등을 홍보하였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건축사회(정인채 회장)는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광주지역 사고를 줄이고 전문가 단체인 만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제33회 건축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16일 호남대복지관 지하1층에서...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2023 제33회 건축전시회가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학년생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Our Hour'라는 주제로 호남대학교 복지관(10호관) B1F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33회째를 맞이한 건축전시회 개막식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유창균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이민석 교수,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건축경관과 박금화 과장, 재학생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정인채 회장)는 "이번 건축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동구청, 남구청, 광산구청에 사랑의 쌀 기증

연말을 맞아, 각 구청에 쌀 100포씩 전달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29일에 동구청, 12월 12일에 남구청, 13일에 광산구청에 사랑의 백미 100포씩 총 300포를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각 구청장(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하여 광주

건축사회 정인채 회장과 임원진, 각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진행했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며 "광주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및 연탄 전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배식봉사,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대한민국의전물균경유족회, 광주복싱협회 성금전달, 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등 다양한 사회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기획전시 플랫폼·복합문화공간·옥상정원 등 구성... 2027년까지 건립

광주광역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주)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을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

동구인문학당

길혜연 건축사 / 에이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29, 1층 / Tel. 010-2832-2395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68-5번지 일일 / 대지면적 : 2,647.50㎡ / 건축면적 : 254.97㎡ / 연면적 : 300.35㎡
규모 : 한옥동-지상 1층, 증축동-지상 2층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구조 : 한옥동-혼합목구조+조적조, 증축동-철골조

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만남·소통·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제25회 미술전' 광주 북구청에서 개최

12월 11일 개막, 12월 22일까지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전시 예정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회장 이경탁)가 12월 11일 광주 북구청 갤러리에서 '제25회 미술전'을 개막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북구청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과 미술동호회 회원, 북구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문인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훌륭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축사 미술동호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인채 회장도 "지친 일상에 잠시나마 휴식과 영감을 찾을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는 이번 전시회에 미술작품 약 30여점을 전시했다.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교육 수료식 및 전시회

12월 9일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 영명홀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광주·전남 한옥설계교육원에서 주관한 "2023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12월 9일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 영명홀에서 수료식과 작품전시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옥설계교육원 주상훈 원장을 비롯하여 목구조기술협회 김현중 회장, 광주건축사회 한명석 부회장, 교육운영위원 천득염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수료식에 이어 시상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상에는 박

은숙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마리별), 전라남도지사 표창에는 김용문 건축사(오픈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가 수상하였다.

끝으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 건축 및 문화재 관련 전공자 중 한옥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소정의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등 실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이며 한옥 전문 교수진의 설계 이론·실습 수업, 문화재실측설계 전문가 및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의 치목 실습, 현장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이재경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 609호
 - 김은미 건축사 / 유앤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제봉로 278-1, 403호
- **변경(소재지)**
 - 나병훈 건축사 / 신세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회재로 1224-1, 4층
 - 안 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 / 광주 동구 남문로 527, 401호
- **결혼**
 - 정창균 건축사 / 에이플로우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12월 09일(토)
 - 김정일 건축사 / 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2월 23일(토)
- **부고**
 - 서영주 건축사 / 서건 건축사사무소 / 시아버지상 - 11월 18일(토)
 - 오령훈 건축사 / 히람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19일(일)
 - 이지섭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21일(화)
 - 김충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D&D / 모친상 - 12월 06일(수)
 - 정광일 건축사 / (주)동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09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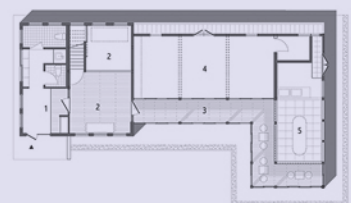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전) 광주광역시 시의회 자문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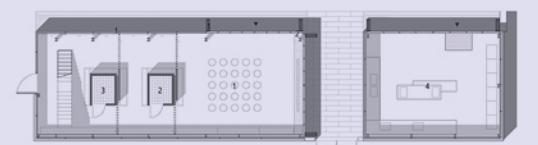


1954년의 한옥은 실측, 진단, 연구, 분석의 과정을 통해 아카이빙으로 보관하고 일부 교체와 변경을 통해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2022년의 신축동은 근대 한옥에 대한 존중으로 그 처마선을 넘지 않도록 고려했으나 전통 목구조의 단위공간 구성, 연속적이고 가변적인 공간구조, 비례와 처마의 형태 등은 철골, 콘크리트, 유리로 해석해 조화와 동시에 대비를 이루도록 의도함으로써 다른 시간대의 두 공간이 비대칭적 균형감을 이루도록 고민하였다.



한옥동 평면도 1.로비 2.한옥 아카이빙 3.복도 4.다목적실 5.다실



증축동 평면도 1.개기형 서고 2.화장실 3.작업실 4.공유주방





제2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 시상목적 :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함.
- ◎ 공모대상 : ○ 사용승인 부문 [공공 / 민간(주거·비주거·한옥)]
 - 전라북도 내에 건축된 건축물 중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10. 5.(목), 09:00 ~ 18:00
- ◎ 수여 내용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차용 기념동판

은상(사용승인 일반(한옥)분야) '행심제'

설계자 : 김현수 건축사 / 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494 / 대지면적 : 757㎡ / 건축면적 : 142.31㎡ / 연면적 : 142.31㎡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주요 마감 : 회반죽마감, 변색벽돌, 육송목재

동상(사용승인 일반(주거)분야) '우아한家'

설계자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720-20 / 대지면적 : 450㎡ / 건축면적 : 89.53㎡
 연면적 : 177.10㎡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지붕) / 주요 마감 : 스타코, 파벽돌

동상(사용승인 일반(비주거)분야) '카페 링크'

설계자 : 김종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 381-28 / 대지면적 : 1,749.00㎡ / 건축면적 : 330.19㎡
 연면적 : 1,804.35㎡ / 건폐율 : 19.97% / 용적률 : 47.5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 후보자 3인 합동토론회 개최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총 4곳에서 진행 예정

공 고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선거일 : '24.1.17~1.18)에 다음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입회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후 보 자		
기호 1번 석정훈 <small>(1969년생)</small>	기호 2번 김재록 <small>(1969년생)</small>	기호 3번 정명철 <small>(1969년생)</small>
<small>(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small>	<small>(주)청구 건축사사무소</small>	<small>(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small>
<small>서울특별시건축사회</small>	<small>서울특별시건축사회</small>	<small>광주광역시건축사회</small>

2023. 12. 13.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결과, 석정훈 건축사((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김재록 건축사((주)청구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가 후보등록을 마쳐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로 지난 12월 13일 공고됐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부산(12월 14일), 광주(12월 21일), 대전(12월 27일), 본협회(2024년 1월 11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투표는 인터넷 투표로 2024년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실시된다.



(좌)조남호 작가, (우)올라퍼 엘리야스 작가

라퍼 엘리야스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Human time is movement)' 2점이다. 설치예술품은 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확보 및 기능 다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경쟁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하였고, 올라퍼 엘리야스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한 관람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작품은 관람 동선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내 북측마당과 남측마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과 함께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소장품 수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 후보자 호남권 토론회 개최 안내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 주관 : 광주·전남·전북·제주건축사회
-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 3층

구분	시간	내 용
실무교육	13:10~14:00	•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 [강의명 : 건축사를 위한 사회적 윤리, 강사 : 이창울]
토론회	14:00~16:20	•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후보자, 좌장, 선관위원 등) 소개] • 진행방법 안내 (좌장) • 후보자 모두발언 • 좌장공통질문[권역별 3개문항] • Coffe Break • 방청석 질의응답 • 후보자 마무리발언 • 종합정리 (좌장)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쉼터' 공모

지자체 간 협업 및 스마트 기술 기반 이용자에게 휴식·문화공간 제공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차 충전시설·태양광 설비·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소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6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소장용 설치예술품 제작 추진... 건축가 조남호·디자이너 올라퍼 엘리야스 참여

20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국내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소장용 설치예술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작은 대한민국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Tectonic Karma)'와 덴마크 올

제23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개최

근대건축 활용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논의



제23차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하여 각 시도회 회장,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쿠이카이 회장, 일본건축사연합회 치카주미 신이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사단체의 모임인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는 국가 간 화합과 건축의 비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각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랜 팬데믹을 끝내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행사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곳 대전은 옛 건축과 오늘날의 건축이 공존하는 곳이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근대건축문화재 답사 등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만큼 근대건축 활용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팬데믹 이후 건축사의 역할과 대응,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실효적 건축설계 협력방안 등의 주제에 대한 정례회의가 있었으며, 오픈세션에서는 하천과 도시공간의 연결 및 활용에 대한 건축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차기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MD+ KMD PLUS

기문당 에서 건축설계 실무강의를 선보입니다.

- ✓ 새롭게 일을 배우는 신규입사자
- ✓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중간관리자
- ✓ 업무효율을 높이고 싶은 모든 직원

강의 수강 후 실무 즉시 적용가능!

초급 건축설계 실무강의 | 도면작성 실무강의 | BIM 실무강의 외

1일 체험권 제공 & 10% 할인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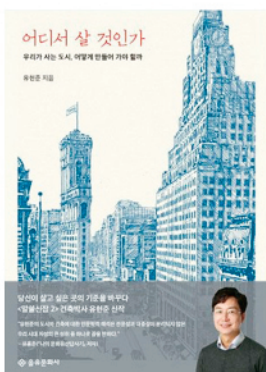
www.kmdplus.net | 문의: e-contents@kimoondang.com | 02-2295-6171(내선211)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저 / 을유문화사 / 2018. 5. 30.

《어디서 살 것인가》는 건축과 공간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삶의 결이 깃든 좋은 터전을 제안하며 삶의 방향성에 맞춰 스스로 살 곳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도시와 우리의 모습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저자는 이번에는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우리가 차를 선택할 때 외관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에 가느냐이듯이, 우리가 사는 곳도 마찬가지로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나가 아닌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서로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는 글 ‘다양한 생각이 멸종되는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1장 학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12장 숨 가쁜 도심에서 벗어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대교 아래 공간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리하여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공감이 갔다. 몇 년이 지나도 학교를 둘러보면 수십 개의 똑같은 상자형 교실을 모아 놓은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남들과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 남들과 똑같은 의자에 앉아 생활을 했다. 책을 읽고 나니 그동안 별생각 없이 지내왔던 공간과 늘 봐오던 풍경들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다.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남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살 것인가? 남들과 똑같은 공간이 아닌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을 스스로 조성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책은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도시와 건물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살 곳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가볍게 읽고 싶은 사람, 어디서 살고 싶은지 인문학적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건축물을 둘러보듯이 책의 구석구석을 유영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이 책을 통해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SHIP'S CAT (Yanobe Kenji, 2022)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022년 10월 14일

한 편의 시

홀로 남겨진 어머니

살아있어 살아가는 노년의 생활
힘들고 어렵게 키운 자식들
잘 사는 맛에 살지만,

기운없고 외로울 때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에 말을 건다.
"까마귀야" 나 좀 데려가다오...

아래로 내려간 주름진 눈가엔
눈물 방울도 함께 아래로 내려가네

윤미순
미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선거 후보자

찬란6년
새로운도약

우리 협회의 최후의 보류는
깨어있는 회원의
조직적인 힘입니다.

함께하면
바뀝니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오늘 함께 꿈꾸어 봅시다.

“딱 3년이면
충분합니다”

- 회장임기 3년, 단임제
- 「민간대가기준」 제정 / 업역 확대
-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경영



2 김재록

-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 사학과 같이 같은 사람